

야누스 : 송도국제도시의 두 얼굴

송도 국제도시의 경제 성장과 시민사회

송도는 영종, 청라와 함께 인천경제자유구역중 하나이다. 경제자유구역을 추진함으로써 국내 타지역과는 제도와 여건을 차별화하여 다양한 외국인 투자와 기업활동을 보장한다. 인천시는 이를 통해 세계와 교류하고 자유로운 경제활동을 보장함으로써 송도를 혁신적인 경제성장 허브로서 기대하고 있다.

송도신도시의 그러한 조건은 많은 다국적 기업과 다양한 국제기구 유치를 가능케했다. 송도신도시는 2004년부터 2017년까지 총 16개의 국제기구를 유치하였고 2030년까지 그 수를 50개로 늘리겠다고 인천시는 발표하였다.¹ 그 중 9개는 유엔 거버넌스 센터, 유엔 지속가능발전센터, 유엔 재해경감 국제전략 동북아시아사무소와 같은 유엔산하기구이다. 이러한 기구들은 본 목적과 더불어 송도 국제도시의 경제 발전과 시민사회 활성화에 많은 영향을 끼치고 있다.

이러한 국제기구 유치는 지역 사회의 교육과 인력 진출의 기회 확대를 위해서도 노력하고 있다. 인천국제기구협의체는 2014년부터 학교방문특강, 국제기구 방문프로그램, 커리어 패어, 직업 체험 등 다양한 프로그램 등을 통해 지역사회 활성화와 시민들의 참여를 적극적으로 지원하고 있다. 더 나아가 많은 국제기구를 유치함에 따라 다양한 국제회의 또한 송도에서 개최되었다. 2015년 19건, 2016년 53건, 2017년 66건으로 매년 국제회의 개최를 확대하고 있다.

많은 국제기구 유치와 국제회의 개최로 인해 인천시의 MICE산업² 발전이 기대되는 상황이다. 이는 지역 경제를 활성화하고 시민사회를 활성화시키며 도시의 지속적인 경제 발전과 활발한 시민사회 구축에 기여할 것으로 보여진다.

1) http://www.wifz.go.kr/irt/biz/contents/CTS_0000000000000086/getContents.do

2) *MICE 산업 : Meeting(회의), Incentive travel(인센티브 관광), Convention(컨벤션), 및 Exhibition & Event(전시.이벤트) 유치 및 개최를 통해 경제활성화, 고용창출, 브랜드 제고 등 유관 산업에 대한 파급효과가 큰 미래 핵심 성장 산업

송도국제도시의 감춰진 진실. 어두운 이면.

SDGs(Sustainable Development Goals)는 U.N.에서 발표한 지속가능 개발 목표이다. 2016년부터 2030년까지 시행되는 이 계획은 유엔과 국제사회의 최대 공동목표이다. 이 SDGs에는 17가지의 주 목표가 있다. 그 중 11번째 목표는 '포용적이고 안전하며 회복력 있고 지속가능한 도시와 정주지 조성'이다. 대한민국에서 예를 들어본다면 어떤 도시가 있을까? 가장 먼저 떠올려지는 도시가 있다. 바로 인천광역시시의 송도국제도시이다. 약 53.4km²의 면적에 2017. 12월 기준 12만명의 인구를 돌파한 이 도시는, 약 40조원의 민간 자본 조달로 지어지고 있으며 상하이, 싱가포르, 두바이 등 도시들의 국제 도시 개발을 토대로 2020년까지 완공을 목표로 하고 있다.

그렇다면 SDGs의 관점에서 바라봤을 때, 송도국제도시는 지속가능 개발 목표에 얼마나 부합하고 있을까? 결론부터 말하자면 그리 낙관적이지 않다. 최근 들어 송도신도시의 주민들을 괴롭히는 문제가 생겼는데, 바로 악취이다. 이 악취의 원인은 쓰레기 자동집하시설에 있었다. 인천 송도신도시는 '첨단 미래도시'를 지향하기에 1천억 원이 넘는 예산을 들여 쓰레기 자동집하시설을 설치했다. 하지만 이 자동집하시설이 오히려 잦은 고장으로 악취를 유발하는 원인이 되었다. 송도신도시의 자동집하시설을 관리하는 연수구는 결국 2017년 시설 운영비로 40억원의 예산을 책정했다. 올해에는 입주민이 늘면서 쓰레기 배출량도 증가해 예산 50억원이 배정됐다고 한다. 쓰레기를 스마트하게 처리하기 위해 만든 시설이 운영비만 매해 10억씩 늘어나는 배보다 배꼽이 더 큰 경우가 됐다.

문제점은 또 있다. 송도신도시는 원래 바다였던 곳을 땅으로 메꾼 간척지이다. 그런데 여기서 문제가 발생한다. 인천의 서해안 일대를 매립해야 하는데, 우리나라 갯벌 전체 면적의 83%(2만 3천여km²)가 서해안에 분포하고 있기 때문이다. 더군다나 인천연안은 한강, 임진강, 예성강 등 담수가 유입되는 지역으로 많은 도서지역과 함께 갯벌이 발달하였으며 전국 갯벌 면적의 약 30%에 해당되는 745 km²이 분포하고 있다. 갯벌은 천연적인 염습지이며 다양한 종류의 염생식물이 출현한다. 또한 바다오염이 정화되는 매우 중요한 장소이기도 하다. 생태계의 보고인 갯벌을 간척한다면 그로 인한 피해는 결국 우리에게 되돌아 온다. 때문에 간척사업은 다양한 관점에서 장기간 검토해보는 것이 바람직한 선택이 아닐까 생각을 해본다.

인류에게 있어서 문명의 발전은 중요하다. 하지만 문명만을 발전시키기 위해 주변 환경을 고려하지 않는다면 정작 중요한 우리의 후대, 미래의 자손들에게 아무것도 남겨줄 수 없다. 우리는 다시 한 번 SDGs를 상기해 볼 필요가 있다.